깡깡이 예술마을
근대수리조선 1번지 대평동
KANGKANGEE Arts Village

萬 事 大 平

만사대평

2018년
8월호



목차

사설 3 변화하는 마을, 또 다른 새로움을 맞이하다

기획특집 4 신기한 선박체험관

이달의 이야기 6 제1회 아티스트토크 '예술가의 밥상'

함께하는 마을 10 민요부르기 동아리, 나만의 자서전쓰기 동아리

대평동 용어사전 12 양만기

마음 가는 대로 13 점점 가려져가는 마을

이달의 건강상식 13 식중독 예방하기

칭찬합니다 14 마을회 이영완회장님

14 퀴즈대평

시가 있는 깡깡이마을 15 젊은 시절, 김부연

16 광고

사설

변화하는 마을, 또 다른 새로움을 맞이하다

글. 김 설 객원기자



오랜 시간 영도에 살았지만 대평동 마을은 그저 공장이 많고 배가 많았던 기억밖에 나지 않는다. 친구 아버지의 공장이 있고 시집가 버린 친구들의 집이 있었던 동네. 골목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마을이 세월의 흐름과 조선업의 불황으로 조용해졌다.

하지만 깡깡이마을을 다시금 활기 넘치는 곳을 만들기 위해 마을주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앞장섰다. 마을 곳곳에 수리조선과 어우러진 예술작품들이 설치되어 마을을 한껏 꾸며놓았다. 여기에 마을어르신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마을의 역사와 이모저모를 곁들인 마을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에 접근하기 어려운 산업지 마을은 현재는 예술과 정이 넘치는 마을로 탈바꿈하였다. 깡깡이 생활문화센터를 재건하여 마을박물관 마을다방이 생겼고 마을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동아리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2018년 깡깡이 마을공작소와 깡깡이 안내센터가 좀 더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옛 도선장 자리에 깡깡이 안내센터가 생기고 알록달록한 배가 있으니 가던 길 멈춰서 다시 통선탈 수 있냐며 많이들 물어보신다. 그만큼 추억과 매력이 철철 넘쳤던 바다버스가 비록 옛날처럼 남포동을 이어주는 역할은 못하지만 새로운 추억을 선물하고자 열심히 준비 중이다.

하루빨리 주민들과 방문객들에 새로운 추억을 줄 거점공간이 개장하는 날을 기다려본다.



기획 특집

신기한 선박체험관

글. 김슬기

지난 8월 31일, 영도 대평동 깡깡이예술마을에 부산의 해양생활문화와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인 '신기한 선박체험관(이하 선박체험관)'입니다.

대평동 물양장(소형선박을 정박하는 부두시설)에 정박해 있는 예인선 한척을 매입하여 선박 내부에 직접 들어가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말 대평동 소재의 한 선박수리소를 섭외해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수선하는 것을 시작으로 6~7월에는 선박 체험을 더욱 극대화시켜줄 예술가를 섭외해 선박 내외부에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8월에는 시설 점검을 비롯해 각종 행정 절차 등을 마치고 8월 31일 정식으로 개관해 방문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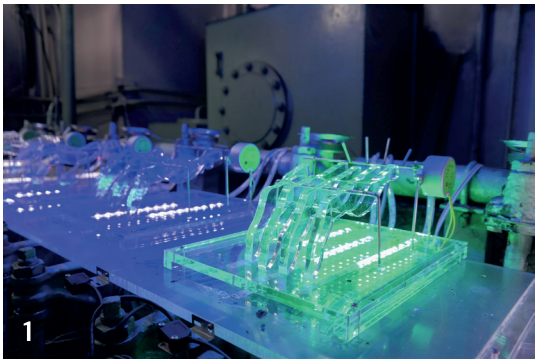




‘신기한 선박체험관’은 일반인들은 평소 쉽게 둘러보기 어려운 선박의 내부(조타실, 기관실, 선실 등)를 들여다볼 수 있게 했으며 선원들의 이야기, 배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일부 공간에 전시해 부산의 해양생활문화를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욱 다채로운 선박체험을 위해 여섯 명의 예술가가 참여해 선박을 모티브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명 ‘바다정원(Floating Garden) - 만남과 치유의 숲’이라 불리는 전국 유일의 ‘선박정원’이라는 특별한 시도를 선보였습니다. 조타실 상단이나 선수 및 선미 갑판 등에 정원이 조성되어 있어 싱그러운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박체험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크게 세 가지의 컨셉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선박체험

선박들의 거리박물관인 물양장에 위치한 선박체험관은 항구도시 부산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영도 물양장의 배들을 거리에서 보고, 실제 운항했던 선박의 실내 • 외 공간을 있는 그대로 체험해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예술체험

실제 운항했던 배의 실내 • 외 모습과 공간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를 활용한 라이트, 사운드, 관람객의 동작에 따른 인터렉티브 작품 등으로 작가의 상상력이 결합된 공감각적인 예술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 **조타실** : 영상인터렉티브 체험작품(사용자반응형 작품)인 '바다의 추억'사진 3을 선보인 김태희 작가는 배에 있던 조타기(자동차의 핸들에 해당하며 배의 방향을 결정)를 디스플레이 장치와 연결하여 조타기를 움직이면 바다를 항해하거나 영도다리가 오르내리는 영상이 나타나도록 해 더욱 생생한 체험을 만나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기관실** : 신무경 작가는 선박 엔진 구조를 활용하여 빛과 소리, 움직임이 있는 '파워웨이브'사진 1 작품으로 엔진이 움직이는 듯한 소리와 동력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 **선실** : 선원들의 휴게공간인 선실에다 그물 침대를 설치해 해당 공간의 쓰임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한 서민정 작가의 '선택하지 않는 #18'사진 4라는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 **바다** : 파도의 에너지를 활용해 소리가 나도록 한 니시하라 나오 작가의 작품 '숨비'사진 5가 있는데 이는 바다의 해녀들이 참은 숨을 내쉴 때 나는 '숨비 소리'와 닮아 이름 붙여졌습니다.
- **선미 갑판, 물양장** : 첸 사이 후아쿠안 작가의 '써라운드 사운드 스피커'사진 6 작품은 배가 오가는 소리, 수리하는 소리 등 물양장 주위의 소리를 확성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2층에 설치된 김덕희 작가의 '깡깡스코프'사진 2는 깡깡이마을의 깡깡과 콜라이더스코프만화경의 스코프를 합친 단어로, 만화경의 구조를 이용하여 거울에 의해 다양한 각도로 반사된 부산 일대의 풍경을 선박 위에서 바라보는 작품입니다.



3


4

○ 녹지공간

영도대교와 바다풍경이 어우러진 경치가 좋은 곳에 위치한 선박체험관에 정원을 조성해 녹지가 부족한 마을에 자연의 생기를 더해줍니다. 뜰과 숲이라는 팀이 결합했으며 세월이 흐른 선박의 분위기와 조화로운 소재의 플랜터나 선박에 있던 드럼통을 재활용하고, 부두의 포장과 동일한 콘크리트 흄관을 사용해 그 곳에 해안가에 서식이 가능한 교목과 관목, 초화류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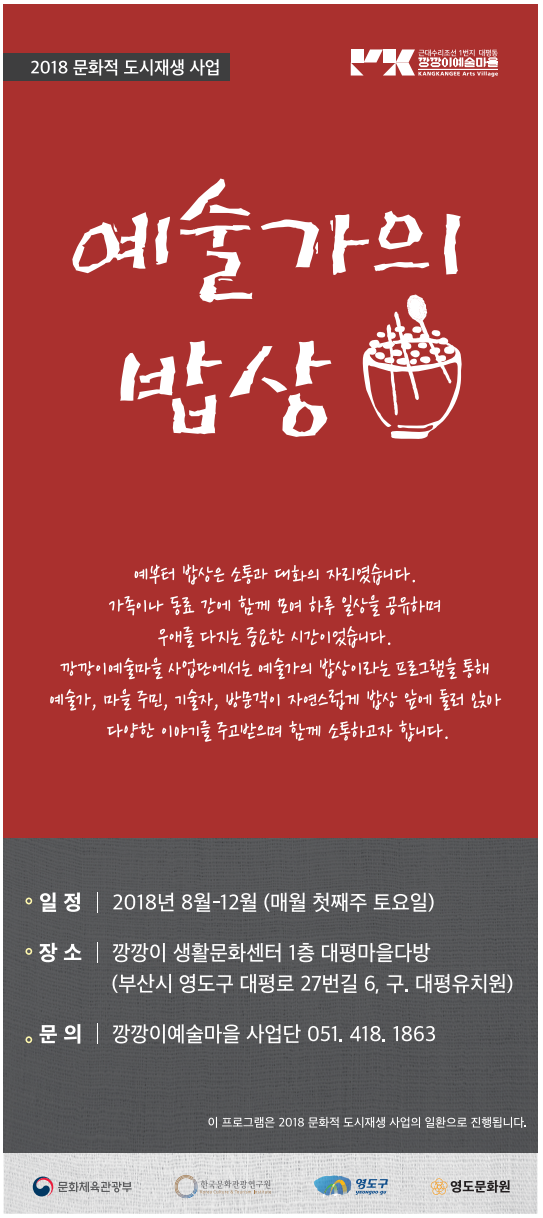

6

선박체험관은 투어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 중입니다. 마을 재생의 지속가능과 주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투어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되며 사전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어 일정은 유선전화, 깡깡이예술마을 홈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박체험관 체험 신청 및 문의: 051-418-3336/ 홈페이지: www.kangkangee.com

제1회 아티스트토크 '예술가의 밥상'

글. 김슬기



8월11일 토요일, 대평마을다방에서 열렸던 제1회 아티스트토크, 예술가의 밥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행사 당일, 생활문화센터 입구부터 맛있는 냄새가 군침을 돌게 하는 기분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예술가의 밥상은 예술가, 마을 주민, 기술자, 외부 방문객이 함께 식사를 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함께 소통하고자 마련한 행사입니다. 예부터 밥상은 가족이 둘러앉아 하루 일상에 대한 대화를 하며 우애를 다지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나만의 자서전쓰기 동아리를 이끌어주시는 정우련 작가님이 예술가로 참여하셔서 작가님이 즐겨 드시는 고등어추어탕을 메인 메뉴로 선정하였고 푸드 스타일리스트 조세빈 님이 추어탕과 함께 곁들일 수 있는 반찬까지 마을주민 분들과 같이 준비를 하여 먹음직스러운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행사는 시화동아리 회원 분들이 게스트로 참여하여 시 낭송과 살아온 인생을 글로 담아보는 재미를 진솔하게 말씀해주셔서 관심은 있지만 글쓰기에 자신이 없으셨던 마을 분들도 함께 짧게나마 함께 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았습니다. 짧은 글을 쓰시는 것도 쑥스러워 하셨지만 잠깐 생각을 하시고는 이내 엽서 안을 가득 채워 글을 쓰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부끄러워 몇 번씩 접어 주머니에 숨겨 가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렇게나마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한 번 꺼내 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뜻깊고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티스트토크 '예술가의 밥상'은 매 회 다른 예술가와 주제로 매 월 첫 주 토요일에 12월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민요부르기 동아리, 나만의 자서전쓰기 동아리

글. 김슬기

1. 민요부르기 동아리

강사: 소리꾼 서영화
8/1부터 매주 수요일 2시(11회),
생활문화센터 2층 동아리실





"옹헤야 옹헤야! 어쩔씨구 옹헤야!" 매주 수요일이면 깡깡이 생활문화센터 동아리실에서는 어김없이 신명나는 장구소리와 구성진 노랫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지난 8월1일 수요일, 민요부르기 동아리 1회차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노래 부른다 해서 왔는데!" 하는 마을어르신들의 기대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 흥이 많은 우리 마을 어르신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는 단연 민요부르기 동아리였습니다. 마을활동에 참여하기 쑥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사전에 신청까지 하고 오시는 인기 동아리 입니다. 민요라는 장르 자체가 평소에 일을 할 적에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온 노래라 기술적인 기교보다는 부르는 사람의 느낌과 매력으로 부를수록 노래의 맛이 살아있어 더욱 더 쉽게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봤을 법한 민요들로 목청을 틔우고, 구수한 장구 장단에 내 인생을 담은 진심어린 노랫말로 바꾸어 나의 민요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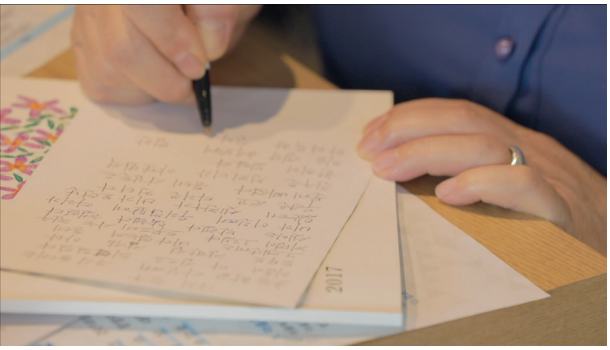
아무도 베낄 수 없는 동아리 회원 분들의 각기 다른 이야기, 요즘 말로 스웩(swag: 나만이 가진 개성, 자신만의 멋)을 민요로 들을 날이 기대가 됩니다.

젊은 시절, 자식들 뒷바라지에 먹고살기 바빠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우리 마을 어르신들의 숨겨왔던 끼와 재능을 대방출하는 장인 2018년도 깡깡이예술마을 동아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산전수전 겪으며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이제 노래로, 글로 말해보려 합니다.

※동아리 신청 및 문의: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051)418-1863

강사: 정우련 작가
8/9부터 매주 목요일 2시(8회),
생활문화센터 2층 동아리실





2. 나만의 자서전쓰기 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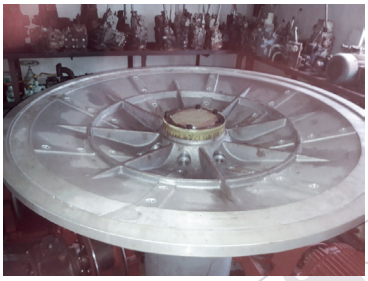
작년 시화 동아리에서 마을 곳곳에 숨어있던 보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시화동아리 회원분들이 쓴 시화집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떤 시인의 시보다 감동적이라고 한 마디씩 하시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강의를 듣고 글을 써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올해는 심화된 활동으로 매주 목요일 2시, 나만의 자서전쓰기 동아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서전(自敍傳)'이란, 자기 스스로 쓴 자신의 일대기라는 뜻으로 내가 살아온 인생을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서전이라는 한 편의 책으로 만들면서 잊고 있었던 나의 어릴 적 추억을 찬찬히 곱씹어 보고 회상할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요? 8주 동안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일들을 소환해가며 정성스럽게 담아보려 합니다. 맞춤법이 딱딱 맞고, 화려한 문법들이 등장하는 글은 아니지만 삐뚤빼뚤 한 자, 두 자 적어 내려간 그 글에는 그들의 희노애락이 모두 담겨있는 감동적이고 값진 글입니다. 두 시간 수업동안 열심히 쓰시고는 다른 사람이 보려고 하면 쑥스러워 뒤로 숨기시기 바쁩니다. 받침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그 글자들에서 더 감동과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 곳곳에서 글쓰기에 흥미를 느끼고 참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게 자랑스럽고 이 활동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양만기 (POWER BLOCK)

글. 이춘옥 주민기자





위: 양만기
아래 : 선미 위치의 양만기

동네를 지나다니다가 언뜻 눈에 띄는 큰 물체가 있어 사진 촬영을 하고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알아보니 배에 쓰는 것이라고 하면서 신창공업사에 가보라고 하여 찾아가니 마침 사장님께서 작업 중이셨습니다.

제 소개를 하고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친절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많은 양의 고기를 잡은 어망(漁網:그물)을 어떻게 끌어 올릴까? (도르래 기능)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양만기(power block)라고 하시면서 연안의 선망(船網: 고등어잡이 배를 일컫는 말)에서 어망을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어로(漁撈)장비라고 하셨습니다.
규격은 거의 동일하고(1.3톤의 무게) 어망을 끌어 올릴 수 있는 힘은 5톤 정도의 위력을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대평동에서 34년 경력의 신창공업사 조인출 사장님께서 주로 일본산이었던 양만기를 약 15년 전, 국산으로 제작을 처음으로 실현하시어 사용되고 있지만 2배 가격의 일본산과 비교해 품질, 가격, A/S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데도 국내어선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에 큰 아쉬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선미(船尾:배의 꼬리) 위치에 사용하는 양만기도 현재 제작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폭염의 날씨에도 도움주신 신창공업사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가는 대로

점점 가려져 가는 마을

글. 이은미 주민기자

버스를 타고 영도다리를 건너오는 어느 날
점점 도시화 된 건물에 가려진 마을이
계속 늘어나는 건물에 마을이 가려져
답답함을 느끼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겨웠던 마을의 모습이 없어지고
눈앞에 다가오는 마을이 사라질까봐 아쉬움이 밀려오네요.
이 모습 그대로 남겨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달의 건강 상식

식중독 예방하기

글. 이은미 주민기자

손을 자주 깨끗이 씻는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 요리 전,
식사 전에 비누거품을
충분히 내어 꼼꼼히 깨끗이
손을 씻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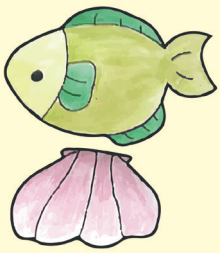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한다.

식중독균은 실온상태(10℃ ~ 40℃)
일 때, 급속히 증식하므로 음식을
냉장 또는 냉동상태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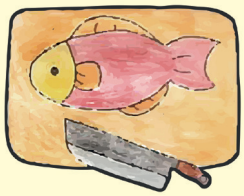
생선과 조개는 반드시 익힌 후 섭취한다.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세척한
다음에 반드시 끓는 물에
1분 이상 가열 후 섭취합니다.



칼과 도마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어패류는 다른 식재료들과
구분하여 칼과 도마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깨끗이 소독하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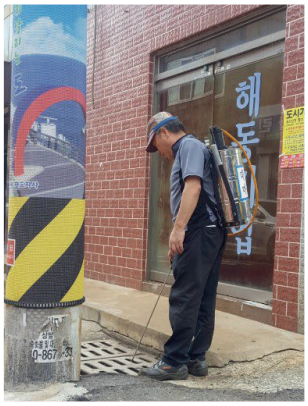


칭찬합니다

마을회 이영완회장님

이득생님께서 대평마을회 이영완 회장님을 칭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성주철재를 운영하시는 이영완 회장님은 항상 꾸밈이 없는 털털한 모습을 하고 계시며 또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여러 다양한 봉사도 하고 계시지만 특히 매 해마다 우리 깡깡이마을 구석구석 방역도 직접 하시며 자신의 일을 미루지 않으시며 궂은 일도 도맡아 하신다고 합니다. 쾌적한 마을을 만들어 주위의 귀감이 되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씨도 가지고 있으며, 주변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분이시라고 이영완 회장님을 칭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글.이종렬 주민기자

퀴즈대평 !

지난 7월호 '이달의 건강상식'에 이은미 주민기자님께서 비염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을 알려주셨는데요.
그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정 답 : (, ,)

퀴즈대평의 정답을 적어 맞추시는 선착순 3분을 뽑아 경품을 드립니다 !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퀴즈의 정답을 작성하여 생활문화센터 2층으로 방문해주세요.)

14

젊은 시절

김 부 연

청솔나무 소나인짐에 온갖 새가 다오드니
청 솔나무 고목되니 오든새도 안이온다
내인생 살이하고 똑같다
앞만 보고 살다보니 여기 까지 왔네
고장난 시계 처럼 서다 가면 안될까
돌아 도보니 안로 선거름에
달에 가네 정말 외 달픈 인생이다
하는수 없지 가는길 밖에 갈수 없네



* 이 시화는 깡깡이 예술마을 나만의 자서전쓰기 회원이신 김부연 어머니의 작품입니다.

기술과 제작문화가
살아있는 깡깡이마을



깡깡이 마을공작소

1. 메이커스 프로젝트 8월-12월
2. 마을목수 동아리 8월-계속
3. 체험키트 조립 8월-계속 *사전신청필요



근대수리조선 1번지 대평동
깡깡이예술마을
KANGKANGEE Arts Village

www.kangkangee.com

문 의 |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051. 418. 1863

기사, 기자를 모집합니다

· 만사대평의 주민 기자가 되고 싶은 분
· 평소 글쓰기,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등에 관심이 있으셨던 대평동 주민분
· 대평동을 다녀가신 분의 방문 후기

생활지면 광고를 게재해 드립니다

결혼 축하, 돌 기념, 고희 기념, 업체 광고 등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는 소식들을
마을 신문을 통해 전해 보세요.

· 광고 게재료는 1만 원입니다.
· 만사대평은 부산시내 주요 관공서, 영도구 주요 기관 등에 배포됩니다.

깡깡이예술마을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051-418-1863 | ydart2016@hanmail.net

깡깡이예술마을 사무국
051-418-1863
부산시 영도구 대평로27번길 8-8,
2층생활문화센터 ydart2016@hanmail.net

발행처: 영도문화원
편집인: 하은지, 김슬기
주민기자: 이춘옥, 이종렬, 이은미
디자인: STORYMERGE Design
발행일: 2018년 8월

* 「만사대평」은 2018 산업관광 육성 사업 2차(깡깡이 수리조선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